전남 미래교육·인사혁신 방안 찾는다

전남교육청, 내일 교육공동체 공청회…유튜브로 생중계

학생·교직원·학부모 등 폭넓은 의견 실시간 수렴 예정

학령인구 감소와 4차산업혁명 시대 도래에 따른 미래 전남교육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과 인사혁신안 마련을 위한 교육공동체 의견수렴의 장이 마련된다.

전남도교육청(교육감 장석웅)은 11일 오후 청사 2층 대회의실에서 '학령인구 감소와 4차 산업혁명 시대 전남 미래교육 및 인사혁신 방안 모색 교육공동체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혁신을 넘어 미래로 - 역량이 미래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공청회에는 도교육청과 시·군 교육지원청 및 각급 학교 학생, 교직원, 학부모, 교원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

공청회는 '지속가능한 전남 미래교육을 위한 제언'이라는 특강(이동성·전주교대 교수)을 시작으로 '전남 미래교육 종합발전방안(전형권·전라남도교육청 장학관)', '인사혁신방안(범미경·전라남도교육청 장학관)' 등의 기조발제와 패널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미래교육을 주제로 한 패널토론 1에는 허성균 곡성교육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장성모 해남교육장, 권혁범(여민동락 대표), 김유동 장학관(도교육청 혁신학교팀장), 이계준 교장(별량중), 전형권 장학관(도교육청 기획조정팀장)이 토론자로 나선다.

김갑수 목포고 교장이 좌장을 맡은 패널토론2에서는 장용철 교장(외서초), 한창수 교감(빛가람초), 박응인 교사(오룡중), 윤양일 사무관(도교육청 재정과), 범미경 장학관(도교육청 정책평가팀장)이 나서 인사혁신을 주제로 토론을 벌인다.

패널토론을 마친 후 이장규 교장(용방초)의 진행으로 모든 온라인 참석자들이 모바일을 통해 현장 의견을 공유하며 마무리하는 종합토론 시간을 갖는다.

도교육청은 코로나-19에 따른 감염 방지를 위해 도교육청 간부와 팀장 및 패널 등을 제외한 모든 참가자들은 온라인을 통해 공청회에 참가토록 했다.

이에 따라 사전 참가신청을 마친 90여 명의 학생, 교직원, 학부모들은 PC나 휴대폰을 통해 '전라남도교육청 영상회의시스템(jwc.jne.go.kr)'에 접속해 시청하며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게 된다.

이날 공청회는 일반 도민과 교육가족들의 참여를 위해 유튜브(전남교육TV)를 통해 생중계되며, 참여를 희망하는 교육 가족과 도민들은 유튜브로 접속해 실시간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장석웅 교육감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교육은 새로운 변화와 도전에 직면해 있다."면서 "이번 공청회가 전남 미래교육 종합발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지혜를 모으고 활발히 의견을 개진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광양교육지원청 한려대 간호학과 학교 방역 지원 나섰다

광양교육지원청(교육장 조정자)은 모든 학교의 전 학년 등교수업이 이루어진 8일부터 학교 내 '코로나19' 감염예방 활동으로 학생들의 건강을 지켜주기 위해 한려대학교와 함께 학교지원에 나섰다.

9일 광양교육지원청에 따르면 한려대 간호학과 재학생 40명은 8일부터 26일까지 3주간 관내 초·중·고 17개교에서 매일 발열체크와 마스크 착용 지도, 급식소 이용 시 질서유지 등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광양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는 한려대에서 중마동과 광영동, 진상면 등 대중교통 노선이 열악한 학교까지 봉사활동 학생들을 위해 교통지원에 나서고 있다.

송영석 학교지원센터장은 "관내 학생들이 코로나19로부터 안심하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학교지원센터 업무발굴로 학교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동부취재본부 김택영 기자

여수교육청, 방과후학교 초등돌봄교실 전달연수

여수교육지원청(교육장 김용대)은 지난 8일 관내 초·중학교 방과후학교 및 초등돌봄교실 업무담당자 대상으로 2020학년도 방과후학교 및 초등돌봄교실 운영을 위한 전달 연수를 화상회의로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방과후학교 및 초등돌봄교실 운영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자 2020학년도 개선된 내용을 중심으로 전달하였고, 세부내용은 방과후학교 운영 매뉴얼, 센터중심 운영, 자유수강권, 등교개학에 따른 초등돌봄 운영 방안 등을 안내하였다.

이 후 학교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의견을 듣고 서로 의논하며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도 가졌다.

연수에 참여한 교사는 "등교개학 후 정상화된 방과후학교 운영으로 계획 수립부터 운영시간 확보까지 고민이 되었는데 이번 협의회를 통해 학교 현장에서 운영하는데에 어려움이 없을 것 같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윤순석 학교지원센터장은 방과후학교 운영 지침과 체계적인 절차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하는 투명한 방과후학교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 지원 활동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어울림 수업으로 학교폭력 없는 평화교실 만들어요"

고흥교육지원청, 학교폭력 책임교사 역량강화 연수

고흥교육지원청(교육장 정길주)은 지난 5일 교육청 대회의실에서 관내 중·고등학교 학교폭력 책임교사 20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초등학교 학교폭력책임교사 역량강화에 이어 중·고등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이 어울림프로그램을 수업과 연계하여 학교폭력 예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수를 준비하게 됐다.

어울림 수업은 학생들이 공감, 의사소통, 감정조절, 갈등 해결 능력 등의 인성역량을 교육과정 중 수업 시간에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수업이다. 이번 연수에서 강사인 신정욱(곡성옥과중, 남) 수석교사는 어울림 수업의 교실수업화, 지속화, 단계화 과정과 실제 교과별 수업안 작성·운영 방법을 안내하여 연수 참석자들의 만족도를 높였다.

장흥중 학부모회, 신입생 등교 맞이

장흥중학교 학부모회(회장 최윤정)에서는 지난 8일 중학교 1학년 등교 시간에 맞춰 학부모회 임원 등 학부모와 1학년 담임 선생님 등 전 교직원이 신입생 등교 맞이를 하였다.

이날 학년별 등교 시간(1학년 8시 40분)에 맞춰 온 신입생(89명) 한 명 한 명에게 담임 선생님이 선물을 건네주고 학부모와 교직원이 박수로 환영하였다.

첫 등교한 신입생들은 교문에서 맞이하고 있는 선생님, 학부모와 눈이 마주치자 약간의 어색함과 부끄러움, 웃음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며 즐거워하는 듯하였다.

8일로 장흥중학교 270여 명 전원이 등교하여 학교생활을 하게 되었다. 신입생 등교 맞이에 참여한 최혜량 선생님은 "활동량이 많은 남자 중학생들이 점점 무더워지는 가운데 건강하고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40여 교직원 모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하였다.

광주송정도서관,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

오는 10월16일까지 매주 금요일 20주 동안 진행

광주송정도서관이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서 주관하는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 프로그램을 인근 한별지역아동센터와 협력해 6월5일부터 10월16일까지 매주 금요일 20주 동안 운영한다.

9일 광주송정도서관에 따르면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 프로그램은 정보취약계층 어린이들이 책을 가까이 하고 도서관과 친해지는 환경을 마련해 주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이번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3~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도서관 활용 수업', '리딩푸드 수업', '그림책을 활용한 연극놀이', '문화체험' 등으로 알차게 구성됐다.

특히 책에 거리감을 느끼는 아이들은 '리딩푸드 수업'을 통해 그림책을 읽고 관련 음식도 만들어 봄으로써 책에 대한 흥미를 가질 수 있다.

또 '그림책을 활용한 연극놀이'는 광주의 연극 극단 '청춘'의 전문 배우들과 함께 2회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광주송정도서관 추선미 관장은 "이번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 프로그램을 통해 코로나19 사태로 몸과 마음이 움츠러든 아이들이 책읽기의 즐거움을 느꼈으면 한다"며 "아이들이 책을 통해 깊이 사고하고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인호 기자